

 금융위원회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
	<b>보도</b>	<b>2019.6.24.(월) 배포시</b>	배포	2019.6.24.(월) 14:00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이 한 진(02-2100-2620)	<b>담 당 자</b>	이 소 민 사무관 (02-2100-2623)
	신용정보원 상무 조 방 수(02-3705-5806)		조 만 식 팀장 (02-3705-5917)
	KCB 연구소장 김 정 인(02-708-6071)		이 준 호 부장 (02-708-6122)
	NICE평가정보 본부장 이 세 옥(02-2122-4530)		이 종 철 팀장 (02-2122-4807)

## 제 목 : 6.25일부터 상호금융·보험·카드·캐피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됩니다.

※ 「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」(‘18.1.30일), 「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」(‘18.12.27일) 보도자료 관련임

- ◆ 기존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점수·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을 주로 고려하여,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**신용점수·등급이 크게 하락**하였습니다.
- ◆ 이에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점수·등급 산출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①**대출금리**의 반영비율을 **높이도록** 하여,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**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여 향후 금리나 대출 한도에서 불이익**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  -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‘19.1.14일부터 이미 시행되었고, 실제로 총 68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.
  - 저축은행권 외에 **상호금융·보험·카드·캐피탈** 업권의 이용자에 대해서도 ‘19.6.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◆ 또한, ②**대출유형** 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의 신용위험이 유사한 중도금 대출·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‘19.1.14일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경우의 **신용점수·등급 하락폭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**하도록 개선을 완료하였고,
  - 실제로 총 36만명(중도금), 10만명(유가증권 담보)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.

## 1 주요 내용

- (현황) 금융소비자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·등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\*

\* 업권별 대출발생시 하락폭(등급, NICE평가정보, '17.3월중 신규대출자 기준)  
: (은행)0.25, (상호금융)0.54, (보험)0.86, (카드·캐피탈)0.88, (저축은행)1.61

- ①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음
- ② 또한, 중도금 대출·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간 신용위험 차이가 거의 없는 대출유형의 경우에도 업권간 차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음

- (개선) 제2금융권 이용자에 대해 CB사가 신용점수·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하여 신용위험을 세분화하도록 개선

- ① CB사의 개인신용평가 모형에서 소비자가 이용한 금융업권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보다 높여,
  - 제2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·등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하도록 개선
  - 동 방안은 '19.1.14일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해서 시행을 완료 하였으며, 상호금융·보험·카드·캐피탈 등 다른 제2금융권 이용자에 대해서도 '19.6.25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임

※ (참고) 아직까지 대출금리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음을 감안, '금리 대별 위험도'와 '업권별 위험도'를 함께 반영하여 신용점수 하락폭을 조정

- 대출 금리별 불량률 등에 대한 통계분석 등을 거쳐 대상 금리 수준을 결정 (상호금융·보험업권: 6%이하, 카드: 10%이하, 캐피탈: 14%이하, 저축은행: 18% 이하)

- ② 또한, 대출유형 중 중도금 대출·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'19.1.14일 업권별 차등의 폐지\*를 완료하였음

\*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신용점수·등급 하락폭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

## 2 시행의 효과

① '19.6.25일 시행으로 상호금융·보험·카드·캐피탈 이용자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상승\*하고,

○ 이 중 46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 (KCB, '19.3월말 기준)

\* (상호금융) 총 48만명, 평균 36점 상승 (보험) 총 23만명, 평균 31점 상승 (카드) 총 14만명, 평균 40점 상승 (캐피탈) 총 32만명, 평균 32점 상승  
[이상 각 업권별 금융소비자의 수는 여러 업권의 대출을 중복하여 받은 사람을 포함]

### ✓사례 1 : 캐피탈 업권 대출 이용자 사례

- 회사원 A씨는 신용점수가 830점으로, 신용등급이 3등급에 가까운 4등급 이어서 은행 대출 이용이 어려워 캐피탈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되었다.
  - '19.6.25일 시행 이전에는 제2금융권 이용고객 중 신용위험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캐피탈 신용대출로 인해 신용점수가 64점이 하락, 766점이 되어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하락하게 된다.
  - 시행 후에는 A씨의 대출금리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여 신용점수가 27점이 하락, 803점으로 신용등급 4등급을 유지하게 된다.
- ➔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, 그 결과 금리나 대출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향후 신용관리 및 대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방지

② '19.1.14일 저축은행권 시행 완료로 저축은행권 이용자 총 68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5점 상승하였고,

○ 이 중 40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

### ✓사례 2 : 저축은행권 대출 이용자 사례

- 직장인 B씨와 C씨는 신용점수가 각각 710점(신용등급 5등급), 650점(신용등급 6등급)으로, 두 사람 모두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였다.
  - (시행 전) 저축은행 대출로 두 사람 모두 신용점수가 83점이 하락하여 B씨는 627점(신용등급 7등급), C씨는 567점(신용등급 7등급)이 된다.
  - (시행 후) B씨는 신용점수가 48점 하락하여 662점(신용등급 6등급), C씨는 83점이 하락하여 567점(신용등급 7등급)이 된다.
- ➔ 차주별 신용위험 차이를 반영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져 신용위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용점수가 유사하게 하락하는 불합리가 개선

③ '19.1.14일 중도금·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업권별 차등 폐지 완료로 총 36만명(중도금), 10만명(유가증권 담보)의 신용점수가 각각 평균 33점, 37점씩 상승하였고,

- 이 중 14만명(중도금), 5만명(유가증권 담보)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

#### ✓사례 3 : 상호금융권 중도금 대출 이용자 사례

- 직장인 D씨는 신용점수가 920점(신용등급 2등급)으로, 평소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던 신한에서 중도금대출을 이용하였다.
  - '19.1.14일 시행 이전에는 동 대출로 신용점수가 50점 하락하여 870점(신용등급 3등급)이 된다.
  - 시행 후에는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신용점수가 27점 하락하여 893점(신용등급 2등급)이 되었다.
- ➔ 은행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는 소비자와 제2금융권에서 받는 소비자의 신용위험이 유사한데도 신용점수가 다르게 하락하는 불합리가 개선

※ (참고 1) 위 ①, ②, ③에 대해서는 '19.1.14일에 함께 시행된 연체정보 활용기준 강화' 등의 효과도 일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

\* (예) 장기연체 등록기준을 '50만원&3개월 이상 연체시 등록'에서 '100만원&3개월 이상'으로 변경

※ (참고 2) ②, ③은 '18.12.31일 기준 신용점수와 제2금융권 평가상 차등 완화 방안이 시행된 직후인 '19.1.15일 기준 신용점수를 비교한 결과(KCB)

#### <(표) 제2금융권 업권별 차등 완화 방안의 시행 경과 요약>

이용 금융업권 대출유형	상호금융·보험·카드·캐피탈	저축은행
신용대출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'19.6.25일 시행</li> <li>※ 시행의 효과 ①, 사례 1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'19.1.14일 시행 완료</li> <li>※ 시행의 효과 ②, 사례 2</li> </ul>
중도금 대출· 유가증권 담보대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'19.1.14일 시행 완료</li> <li>※ 시행의 효과 ③, 사례 3</li> </ul>	

### 3 향후 추진계획

□ 향후 CB사 및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정확성, 공정성 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

- 통계 검증 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모형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